

# “무주공산 유권자 마음 잡자”...후보자 표발같이 분주

6·3 지선 현장을 가다 <1>광주 북구

### 민생현장 찾아 구민과 소통...선거사무소 개소 통합 이슈 속 정책 발굴...미래 발전 방향 제시

전남·광주 행정통합이 이뤄지면서 6·3 지방선거의 시계가 빨라지고 있다. 출마예정자들도 통합에 맞춰 자신만의 여젠다와 각 지역의 미래 발전 방향을 밝히면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특히 민생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골목골목을 누비며 유권자들의 표심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모양새다. 본격적인 선거전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민생현장 속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 6·3 지방선거 출마 후보자들을 살펴본다. (사진 기사·대순)

광주 북구는 문인 북구청장이 불출마 선언을 하며 이른바 ‘무주공산’ 상태다. 때문에 광주·전남 어느 선거구보다 후보들 사이의 경쟁이 치열하며, 입지자들이 난립하며 복잡한 선거구도를 형성 중이다.

우선 북구청장 선거에는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김대원·김동찬·문상필·정다운·정달성·조호권 등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야권에서는 진보당 김주업 등 7명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광주시의회 의장과 광주경영자총협회 상임부회장을 지낸 김동찬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는 최근 선거사무소 개소를 하고 지역민과의 접점을 늘려나가고 있다. 행정통합 특별법 국회 통과와 관련해 환영의 메시지를 내는가 하면, 행정통합 후 북구가 나아갈 방향 등 정책을 내놓고 있다.

특히 광역교통망 확충과 산업생태계의 유기적 연계로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이룰 북구를 ‘초광역 경제의 심장’으로 탈바꿈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김 후보는 지난 12일 북구청장 출마를



김대원 김동찬 김주업 문상필 신수정 오주섭 정다운 정달성 조호권

공식 선언했으며, 북구 발전을 위한 공약으로 일자리 창출 등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 정책을 내놨다. 문상필 민주당 부대변인도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민심 다지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각화동 농수산물시장을 찾아 경매 당 대표 후보는 최근 선거사무소 개소를 하고 지역민과의 접점을 늘려나가고 있다. 행정통합 특별법 국회 통과와 관련해 환영의 메시지를 내는가 하면, 행정통합 후 북구가 나아갈 방향 등 정책을 내놓고 있다. 최근에는 행정경계를 넘어 하나의 생활·경제권으로 도약하기 위한 광역생활권 통합 정책을 내놓았으며, 전 주민 행복지원금 지급, 북구 AI 모빌리티 선두도시 조성 등을 내걸고 세 확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광주시의회 최초 여성 의장인 신수정 의장은 구의원 3선·시의원 재선 경험을

앞세우며 선거전을 준비 중이다. 경제 중심지 광주역 완성, 서방천 생태 하천 복원 등을 공약했으며 조만간 의원직을 내리려고 예비후보 등록을 한 뒤 본격적인 선거전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오주섭 전 광주경제특구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안전한 북구, 행복한 북구’를 기치로 지역 개발의 투명성과 안전 인프라 확충을 주요 과제로 제시하며 각계 각층의 목소리를 들으며 접점을 넓혀가고 있다. 민주당 후보 면접을 치른 뒤 조만간 예비후보 등록을 할 방침이다. 정다운 광주시의원은 의원직을 내려놓고 세 확장을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지난날 21일 광주 북부경찰서 인근에 선거 캠프를 차린 그는 일자리와 먹거리가 풍족한 북구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시

민사회단체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있다. 그는 오는 16일 공식 출마선언을 할 예정이다. 정달성 민주당 당 대표 후보는 행정통합의 완성을 위한 자치구의 자치시 전환을 주장하는 등 정책적 메시지를 내고 있다. 북구를 ‘생활만족 1등 도시’로 만들기 위해 각 분야별 7대 비전을 내놓으며 지역의 미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광주사회서비스원 원장과 광주시의회 의장을 지낸 조호권 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지난날 11일 출마 선언을 한 뒤 신발 끈을 조이고 민생 현장을 두루 돌고 있다. 최근에는 ‘취임 100일 내 구민 체험 북구 건설’을 강조하며 이른바 24시간 케

어, 아이돌봄 안심 7일제 등을 대표 공약으로 제시했다. 김대원 전 민주당 광주시장 정책실장은 지난날 24일 출마선언을 하고, ‘도시 정책 전문가’임을 강조하며 보복을 넓혀 나가고 있다. 인구 유출과 경기 침체, 기후 위기 등을 기회로 바꿔 다시 뛰는 북구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야권에서는 김주업 진보당 광주시장 위원장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민주당 후보들과의 결전에 들어갔다. 김 위원장은 광주역을 폐역하고 해당 부지에 흩어져 있는 북구 행정기관을 집적화하는 청사진을 그리고 있으며, 지역 내 민주당 일당 독점 구조를 깨고 선명한 진보 정치를 펼치겠다는 포부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 김영록 “500조 반도체 투자유치...경제지도 바꿀 터”

### 1호 공약 ‘풀사이클 반도체 생태계’ 구축 발표 ‘통합 후 공무원 인사이동 등 불이익 없을 것’

더불어민주당 김영록 전남광주특별시장 예비후보가 1호 공약으로 500조원 규모의 ‘풀사이클 반도체 생태계’ 구축을 내놨다. 광주와 전남 동·서부권을 3각 축으로 연결, 반도체 설계부터 양산까지 한 번에 이뤄지는 세계 유일의 반도체 생산기지를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김 예비후보는 지난 13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남광주는 반도체 라인을 가동할 때 막대한 전기와 안정적인 용수 공급망, 이를 뒷받침할 저렴한 산업용지를 갖춘 준비된 땅”이라며 “오른 AI와 SK, 삼성SDS가 이미 지역에 데이터센터와 국가 AI 컴퓨팅센터 세우기로 한 것이 전남광주가 반도체 산업의 ‘최적지’라는 사실을 입증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계 차세대 반도체 장비 기업인 ASML, AMAT는 물론 글로벌 반도체 설계 전문기업인 팹시스를 유치하겠다”

며 “500조원 규모의 신규 투자 유치로, 전남광주의 역사적인 경제 대부흥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광주권을 반도체 설계·엡시 반도체, 전남 서부권을 RE100 기반 범용 메모리 전공정 FAB, 동부권을 HBM·HBF를 중심으로 글로벌 양산 체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광주 군공항 이전 터와 31사단 부지는 각각 판교를 뛰어넘는 첨단 융복합 콤플렉스와 지능형 국방 클러스터로 개조해 우수 인재들이 머무는 든든한 테스트베드로 삼는다는 구상이다. 전남 서부권은 무한한 해상풍력 등 친환경 에너지를 무기 삼아 수출 규제를 뚫어낼 범용 메모리 생산 기지로 탈바꿈시킨다. 해남 솔라시도 일원에 대규모 산업 단지를 구축하고 무안국제공항 주변을 항공 물류망과 연계된 에어로 시티로 엮어낸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록 전남광주특별시장 예비후보가 지난 13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호 공약으로 ‘풀사이클 반도체 생태계’ 구축을 발표하고 있다.

전남 동부권은 기존에 깔린 철강 및 석유화학 인프라를 바탕으로 고대역폭 메모리(HBM) 등을 쏟아내는 초대형 집적회로 양산 거점으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한편, 김 예비후보는 통합에 따른 공무원 인사 불만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근무지 보장을 약속했다. 그는 “공무원은 물론 산하기관과 법인 직원까지 전남광주특별시장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이 통합으로 불안해하거나 염려하는 인사이동 등은 절대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 6·3 지방선거 브리핑

### “여수국가산단 도로·환경관리, 적극 살필 것”

#### 명창환, 노후 도로 전면 조사·단계적 확포장 등 추진

조국혁신당 명창환 여수시장 예비후보(사진)가 여수국가산업단지의 도로 정비와 환경 관리 전반을 시정 핵심 과제로 삼고 적극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명 후보는 최근 여수국가산단이 대한민국 최대 석유화학 산업단지로서 국가경제와 지역경제를 동시에 떠받치는 핵심 산업기반이라고 규정하며, 산단 관리 체계를 전면적으로 점검해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수국가산단은 연간 약 80조원의 매출과 300억달러 이상의 수출을 기록하는 여수 경제의 심장이자 국가 산업 경쟁력의 한 축”이라며 “산단이 안정적으로 가동되고 기업들이 원활하게 생산활동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도로와 교통, 안전 관리 체계부터 제대로 갖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산단 내부 도로 여건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명 후보는 “산단 내 도로는 폭이 좁고 노면이 파손된 구간이 적지 않다



며 ‘화물차와 위험물 차량이 상시 운행하는 산단 특성상 근로자 안전과 물류 효율 측면에서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명 후보는 이를 위한 구체적 지원 방향도 제시했다. 우선 산단 내 노후·파손 도로를 전면 조사한 뒤 단계적 확·포장하고 보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대형 물류차량 운행 특성을 반영한 주기적 도로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산단 공유구간의 도로·교통·공원·공공시설 관리 체계도 정비하겠다고 했다. 명 후보는 “여수시와 산단 입주기업, 한국산업단지공단, 중앙정부와 함께 협의하는 산단 관리 협력체계를 구축해 실질적인 변화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산단이 제대로 돌아가야 여수 경제도 살아난다는 점에서 관련 정책을 시정의 핵심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 민주 특별시장 후보 심층토론회 일정 확정

### 27일 서부권·28일 동부권·29일 광주권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 선출을 위한 정책배심원 권역별 심층토론회의 일정이 확정됐다. 5일 민주당에 따르면 최근 열린 3차 중앙당선관위 회의 결과 전남광주지역 광역단체장 정책배심원 권역별 심층토론회 일정이 추첨됐다. 선관위원장의 무작위 추첨을 통해 오는 27일 오후 2시 전남 서부권을 시작으로 28일 오후 2시 전남 동부권, 29일 오후 2시 광주권을 결정했다. 정책배심원 심층토론회는 권역별 정책 배심원 30명이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즉문즉답 방식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정책배심원의 투표권이 없다는 것을 이유로 이계호 의원은 “누님만 배심원제”라 지적하며 경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신정훈·정준호 의원도 경선 방식 보완을 촉구하고 있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이들 후보들은 첫 통합시장 선거가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는 일반 시민들이 후보들에 대한 알 권리가 더 넓게 보장되어야 한다고 투표를 가진 시민배심원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정책배심원 토론회에 앞서 17일과 18일에는 예비경선 합동토론회가 열린다. 합동토론회는 2개조로 나뉘어 진행되며 A조는 강기정·김영록·민형배·주철현 후보, B조는 신정훈·이병훈·정준호 후보로 편성됐다. 경선 후보 기호는 1번 김영록, 2번 강기정, 3번 정준호, 4번 주철현, 5번 신정훈, 6번 민형배, 7번 이병훈으로 정해졌다. A조는 오는 17일 오후 5시 30분부터 7시까지, B조는 18일 오후 5시 40분부터 7시까지 각각 광주MBC 스튜디오에서 토론회를 갖는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 민주 광산구청장 경선 구도 ‘3파전’ 재편

### 박수기 예비후보 캠프 선대위원장에 박광식 합류

더불어민주당 박수기 광산구청장 예비후보 캠프에 박광식 광산구을지역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이 선거대책위원장으로 합류하면서 광산구청장 선거구도가 3파전으로 재편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수기 광산구청장 예비후보는 15일 선거캠프 개소식을 갖고, 박광식 광산구을지역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의 선거대책위원장 합류 소식을 알렸다. 박수기 수석부위원장은 당초 광산구청장 경선 후보로 거론돼 왔다. 박수기 예비후보는 이귀순 시의원의과 단일화에 이어 박수기 수석부위원장의 지지까지 이끌어 내며 ‘원팀’ 구도를 형성하게 됐다. 이에 따라 민주당 광산구청장 경선은 박병우 현 청장과 차승세, 박수기 예비후보의 3파전으로 재편되며 본격적인 경쟁 국면에 들어서게 됐다. 한편, 이날 선거캠프 개소식에는 전남

광주통합특별시장 예비경선 후보 민형배 국회의원을 비롯해 2000여명이 넘는 시민들이 찾았다. 박 예비후보는 ‘이재명과 함께, 민형배와 함께, 광산구는 박수기’라는 구호를 내걸고 광산구의 새로운 성장 비전과 실행의지를 선거사무소를 찾은 이들에게 밝혔다. 특히 광산구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의 신성장 1번지로 만들고, 40만 구민이 주인공인 ‘주식회사 광산구’ 실현을 통해 행정 성과를 주민의 삶에 환원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박수기 예비후보는 “광산구는 더 이상 변방이 아니라 통합시대의 중심이 되어간다”며 “이제는 구호가 아니라 실행으로 보여주시기 행정이 아니라 구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광산의 미래를 열어야 할 때다”고 말했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 이재태, ‘에너지연금 골든서클’ 공약 발표

### 연 매출 2704억 ‘에너지 선순환 경제’ 구축

나주시장 출마예정자인 이재태 전남도의원(사진)이 나주의 미래 먹거리 핵심 전략인 ‘1GW 골든서클: 에너지 연금’ 공약을 전격 제시했다. 이번 공약은 나주의 풍부한 일조량과 유류 부지를 활용해 거대 에너지 생산 기지를 구축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을 나주시민 12만 명 모두에게 환원하는 ‘에너지 주권’ 실현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재태 의원이 제시한 ‘1GW 골든서클’은 나주 전역에 총 1GW(기가와트) 규모의 영농형 태양광 단지를 조성하는 메가 프로젝트다. 시유지를 마중물삼아 이 프로젝트를 본궤도에 올릴 경우 연간 약 2704억원의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 의원은 “나주의 햇빛과 바람은 특정 기업의 전유물이 아닌 시민 모두의 공공 자산이다”며 “이를 통해 확보한 수익을 시민 주주 펀드와 에너지 공사를 통해 투명하게 배당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공약은 농민과 일반 시민 모두가 수혜자가 되는 ‘투트랙(Two-Track) 모델’을 채택했다. 노동력이 부족한 농촌의 농지를 시가 공정하게 임대해 ‘안정적인 임대료’를 보장하고, 그 위에 영농형 태양광을 설치해 ‘에너지 연금’을 추가 지급한다. 청년을 비롯한 혁신도시 직장인, 소상공인 등 모든 나주시민을 ‘에너지 주주’로 임명해 정기적인 ‘에너지 배당금’을 지급한다. 이 의원은 “단순한 현금성 복지가 아니라, 나주의 자원을 활용해 수익을 창출하고 이를 나누는 자생적 경제 구조를 만드는 것. 이런 선순환 구조야말로 ‘골든서클’이다”며 “이미 신안군 등에서 증명된 성공 사례를 나주형 모델로 완성해 전국 시민 주주 펀드와 에너지 공사를 통해 투명하게 배당하겠다”고 밝혔다. 나주=조현정 기자 pose007@